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배포일시	2021. 5. 17.(월) 10:00
MRTC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Partner Organization of IOM IOM UN MIGRATION | 70 YEARS		담당부서	연구교육실
		담 당 자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02)3788-8031 심나리 IOM 정책공보관 070)4820-2648

이민정책연구원과 국제이주기구(IOM), 세계인의 날 기념 세미나 개최

-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 증거기반 정책과 사회적 공감대' -

□ 이민정책연구원(원장 강동관)과 국제이주기구(대표 스티브 해밀턴)는 올해 제14주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부제: 증거기반 정책과 사회적 공감대)'를 온라인으로 실시하였다.

※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은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임

□ 이번 세미나는 증거기반 이민정책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 조성을 위한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급변과 생산연령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이로 인한 국민 반감은 향후 인구정책적 대응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번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며, “외국인정책이 우리 모두를 위한 정책”이어야 하고, “편견을 걷어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사회적 이익은 최대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8년 12월 한국 정부 포함 152개국이 채택한 이주글로벌컴팩트(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 GCM)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GCM의 목표 관련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고, 정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하였다.

○ GCM은 세계 각국이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2월 152개국 참여로 23개 목표를 제시한 이주에 관한 첫 국제적 합의문이다.

○ GCM은 23개 목표 가운데 증거기반 조성(목표1)과 이를 통한 인식 제고,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목표17)을 특히 강조한다.

□ 이번 행사를 주최한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스티브 해밀턴 대표는 “이주민에 대한 대중 인식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 증거에 기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대중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이 특정 정파의 주장보다 학계와 실무 전문가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 소개되는 “GCM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이기는 하지만, 이주정책 평가를 위한 지표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 세미나 1부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 관여’를 주제로 이주민에 대한 한국인의 사회적 거리감, 이주(민)에 대한 언론의 태도, 인권과 사회적 소통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 1부에서는 심나리 IOM 정책공보관, 김석호 서울대학교 교수, 이희용 한국언론진흥재단 본부장,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팀장이 발표자로 참석하였고, 김현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과장,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박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심나리 IOM 정책공보관은 GCM 17번 목표 소개와 더불어 이주정책에 대한 한국 대중의 공감 현황을 짚어보는 한편 언론의 역할과 참여를 강조한 포르투갈 정부의 이주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노력을 소개하였다. 심공보관은 “한국 정부 역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추진에 있어 국민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참여하는 공론장 조성과 적극적 대중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김석호 교수는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사회통합실태조사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다른 인종 및 민족집단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와 변화에 대해 발표하며 “선주민과 이주민 간 편견은 하루 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설계와 실행 시 근시안적 시각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앙정부 중심 이주정책을 탈피해 지역 생활세계에서 시민들이 다른 집단과의 공존과 상생의 가치를 알아가게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희용 본부장은 최근 이주민에 대한 언론 보도 사례를 분석하면서 갈등지향적이거나 단발성·수박겉핥기식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 보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개선안은 이주민에 관한 일상적 보도확대, 기자 전문성 강화, 관련부처-시민단체-언론 간 협력 강화, 이주민 관련 보도 준칙 마련, 윤리

강령 심의규정 보완, 우수 보도격려, 언론인 대상 인식개선 교육 강화 등이었다.

○ 임선영 팀장은 이주민 인권실태 조사 등을 인용해 국내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지적하고, 이주민 인권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을 소개하였다.

○ 김현채 과장은 “정부와 언론이 국민의 생각을 획일적으로 만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음”을 강조하면서 “갈등을 마주하면서도 개방된 공공담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언론 간 공조 필요성도 함께 강조하였다.

○ 유의정 박사는 “한국사회가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주정책을 총괄하고 통합할 이민청과 같은 단일기관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 **세미나 2부에서는 ‘이주 현황 데이터 관리 및 활용’을 주제로 이주 데이터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외국인 연구자와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사례를 통해 살펴본 국내 데이터 현황, 데이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 2부에서는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동훈 통계청 데이터허브국 사무관이 발표자로 참석하였고, 원미정 경기도 의원, 조상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 이창원 연구위원은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GCM의 첫 번째 목표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목표가 나오게 된 배경으로서

국제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국제이주 데이터의 문제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이주 데이터의 세분화와 표준화 등 질적 제고와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및 한국에서 진행 중인 실천과제에 대해 소개하였다.

○ 김도원 부연구위원은 과학기술 분야 외국인 연구자 모집단 파악을 위해 활용 가능한 (행정)통계 자료를 검토하면서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정의 비일관성, 행정통계 자료 간 중복, 누락 등으로 모집단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 분야 외국인 연구인력에 대한 DB 구축과 실태조사 정례화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 양계민 선임연구위원은 부처별 이주배경아동·청소년의 현황 통계와 실태조사를 소개하고, 개념 및 용어의 혼란, 데이터 수집 방법의 차이, 통계자료 공표 시 통일된 연령 기준 부재, 미등록자에 대한 통계 부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향후 이주배경아동·청소년 통계 구축을 위해 부처별 행정자료의 적극 연계, 정기적인 실태조사 추진, 그리고 관련 통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강조하였다.

○ 서동훈 사무관은 현재 통계청이 진행 중인 외국인 통계 DB 구축 작업을 소개하면서 조사가 점차 어려워지는 환경 속에서 여러 부처의 행정자료와 조사자료를 연계한 외국인 통계DB가 구축되면 외국인 인구적 특성, 경제활동, 가구/가족, 주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시계열적 분석도 가능하여 정책 효과 분석 및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원미정 의원은 “모든 정책은 통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서

"사건이 터지면 대책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데이터 개선을 포함한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 조상언 과장은 행정안전부가 외국인을 주민으로 바라보고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2006년 이래 부처에서 작성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의 변화 내용을 소개하였다. 더불어 현재 그동안 축적된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시기별, 특성별, 공간적 분포 현황 등을 빅데이터 분석 중이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정밀한 외국인주민 지원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 **이번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한 이민정책연구원 강동관 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세미나에서 데이터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라는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중요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향후 이민통계센터나 사회통합기금과 같은 제반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였다.**

□ **이번 세미나는 2021년 5월 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이민정책연구원과 IO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 이민정책연구원 유튜브 채널:
https://youtube.com/channel/UC-QpRQUdVWuUfb8NBc86E3w

※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Mje7RoVDzuFTVifuKtxq9w

<붙임 1> 행사 초청장

제 14주년 세계인의 날 기념

이주·사회통합 정책 세미나:
증거기반 정책과 사회적 공감대

2021.5.17~2021.05.21
사전 녹화 영상 YOUTUBE 송출

이민정책연구원 YouTube

국제이주기구 YouTube



축사 - 김상희 국회부의장
개회사 - **Steve Hamilton** 국제이주기구 한국대표

1부 -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합의와 정책 관여
GCM 목표17과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의 국민공감 | 심나리, 국제이주기구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 김석호, 서울대학교
이주(민)에 대한 언론태도 | 이희용,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주민 인권실태조사와 사회적 소통 |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토론
김현채,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 유의정, 국회입법조사처

2부 - 이주 현황 데이터 관리 및 활용
GCM 목표1과 글로벌 이주 데이터 논의 |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외국인 행정통계 현황 진단: 이공계 외국인연구자 사례 | 김도원 & 이창원, 이민정책연구원
이주배경아동 · 청소년 통계구축의 필요성, 현황과 과제 | 양계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외국인 행정통계DB 구축 | 서동훈, 통계청 데이터허브국



토론
원미정, 경기도의원 | 조상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폐회사 -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

GCM(Global Compact for Migration)은 세계 각국이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8**년 **12**월 **152**개국 참여로 **23**개 목표를 제시한 국제사회 첫 합의문입니다.

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re 이민정책연구원

IOM UN MIGRATION

<붙임 2> 행사 사진

